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2008년도 표어

교회여, 생명을 잉태하라!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요10:10)

행동지침

- 1. 민족 복음화의 산실되어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실현하자!
- 2. 신앙의 대잇기 모범을 보이자
- 3. 교육에 대한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자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말라기서 강해

## 이 시대의 거울

(말라기 1:1-5)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3:13). ‘무슨 말로’는 ‘어떻게’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자기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다고 자기 의를 주장했습니다.**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그친 다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나타난 세례 요한은 신약의 사람으로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세례 요한은 구약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말라기부터 세례 요한까지는 약 400년의 시간적 공백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에 400년 동안 말씀이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말씀을 받을 수 없었던 그때는 완전히 암흑시대였습니다.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으나 원망하고 항거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자들입니다.

(3) 거짓행위의 합리화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7절).  
더러운 것을 제단에 드리고 주님을 멸시하고도 이들은 자기 행위를 합리화 합니다.

(4) 자기정당성 주장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2:17).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서 자기 정당성을 주장함으로 하나님을 괴롭혔습니다.  
한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 두 사람이 서로 자기 정당성만 주장한다면 그 가정은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5) 핑계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3:7).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실 때 그냥 돌아가면 될 것을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느냐고 핑계합니다. 이것은 안가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6) 자기방어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 하였나이까”(3:8).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바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도적질이며 자기 방어를 위한 항변입니다.

(7) 자기 정의 주장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3:13).  
‘무슨 말로’는 ‘어떻게’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자기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다고 자기 의를 주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언제, 우리가 어떻게’라며 하나님 앞에서 핑계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자리에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자리에서 들으며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1. 한 시대의 끝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1절).

말라기 선지자는 학개나 스가라 선지자들로부터 약 100년 쯤 후(주전 432년-424년), 파사에 포로로 잡혀 갔다가 돌아와 예언을 하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시작하면서부터 구약의 모든 예언은 실질적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과 신약 사이의 변혁기에 있었던 예언자입니다. 그는 옛 것을 청산해야 하는 반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과정에서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과거도 보아야 하지만 미래도 보아야 했습니다. 마태복음 17:10에는 “엘리아가 먼저 와야 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아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말 3:1)라는 말씀 가운데 ‘내 사자’를 가리키는데 이는 엘리아의 심장을 가지고 오는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말라기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시기 직전 엘리아가 오는 것으로 예언을 마치므로 구약의 예언을 매듭짓습니다.

2. 어찌하여

(1) 쓴 원망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2절).  
이것은 원망의 소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는 것입니까?”라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은 선택적 사랑이었습니다.

(2) 큰 원망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6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먼 것, 저는 것을 바치고도 어떻게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TV : 케이블 CH 42(CTS,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K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 칼빈 탄생 500주년 기념행사 준비

## 2009년 6월 21일(주) 오후 5시 - 기념 예배, 6시-기념 음악회 6월 22일(월) 오전 10시 - 기념 학술 심포지엄

내년(2009년)은 종교개혁의 지도자이며 장로교회의 창시자인 요한 칼빈이 탄생한 지 500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이에 따라 우리교회와 요한 칼빈 탄생 기념사업회(대표회장 이종윤 목사)는 다양한 사업을 벌이기로 하였다.

먼저 기념 예배를 2009년 6월 21일(주) 오후 5시에 우리교회에서 드리고 6시에는 기념음악회를 열기로

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 6월22일(월)에는 오전 10시부터 학술 심포지엄을 열기로 하였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기념우표 발행, 문진 제작, 칼빈 동상 제작(미정), 칼빈 기독교강요 불어판(새번역) 신학교 기증식, 칼빈 기념물 전시, 도로명명하기(칼빈로), 칼빈 핸드북 출간 등의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 로잔 International Leaders Meeting

## 2009년 6월15일(월) - 19일(금) 장신대에서 개회예배 / 리셉션 - 서울교회에서

로잔 International Leaders Meeting이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2009년 6월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5일간 열리고 개회예배 및 리셉션은 우리교회에서 갖는다.

로잔 International Leaders Meeting은 2년마다 열리는 biennial meeting으로 로잔 위원회 임원, 국제 지역 부총무들, 소그룹 위원회 위원들, 특별 위원회 위원들, 자문위원, 각국 의장, 각 대륙 의장, 원로교인들, 청년 지도자들 그리고 로잔 3차 대회를 준비하는 speakers 와 실행위원들, 각국의 교회 지도자들 약 300명이 전세계에서 참여케 된다.

한국 로잔 위원회와 아시아 로잔 위원회 의장인 이종윤 목사(서울교회)는 케이프타운에서 4,000명이 모일 로잔 3차대회의 16개월 전에 열리는 이 지도자 대회는 실제로 3차대회의 여행연습의 성격이 있다고 하며 영적 수준과 IT 강국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한국에서 이 대회를 가짐으로 로잔 3차대회에 활력을 얻으려는 생각이 있다고 한다.

로잔 International Leaders Meeting은 한국 로잔위원회와 김치(KIMCHI) 위원회가 주관한다.

# 제33기 전도학교 수료

##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지난 6월 1일 개강하여 12주간 실시된 33기 전도학교 수료식이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거행된다. 서울교회 전도학교는 12주간의 교실 강의와 더불어 노방전도팀 혹은 화요, 목요 축호전도팀에 합류하여 참여하여 전도실습을 하며, 매일 매일 스스로 하는 주간 숙제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 교회 부흥의 주역으로 세워지는 효과적인 훈련과정이다. 33기 수료생은 총 61명이고, 지금까지 수료생은 총962명에 달하게 된다. 34기는 8월 31일 오후 1시 30분, 904호에서 개강한다.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수료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가나다 순)

강진환 고선옥 곽태순 구정두 권오철 권혁달 권희순 김남욱 김민철 김상열 김숙연 김승록 김신영 김영제 김영희 김재원 김정두 김창훈 김태삼 김해수 김혜인 김홍두 김희석 노제현 박금희 박길수 박희래 성순자 신규철 신영순 오교식 유태서 윤복순 이건모 이금순 이상호 이수경 이신애 이정민 이종돌 이희국 임병권 임선철 임인자 장명순 정찬주 정창민 정치은 조복자 조숙자 천기성 최금봉 최승환 최정민 최정희 최혜인 하 숙 한난숙 한인진 홍승자 황현진 (총 61명)

# 제22기 찬양대양성반 9월7일 개강

제22기 찬양대양성반이 9월7일부터 7주 동안 매주 일 오후 1시30분부터 3시까지 601호에서 진행된다. 찬양대에 봉사하기 원하는 성도들은 물론, 현재 봉사하

고 있는 찬양대원들도 재교육을 위해 참석할 수 있다. 강의는 이영조 음악감독과 백경화 시운찬양대 지휘자가 담당한다.

주	내용
제1주	찬양과 경배 / 경건의 찬양 / 악보 읽기 / 일반 음명과 계명 / 조성의 이해
제2주	악보 읽기 (음정 익히기와 화음 틀기) / 장조와 단조의 이해
제3주	여러 조성의 악보 읽기와 음정 익히기 / Phrasing과 Blending
제4주	합창의 실제와 지휘자 보기 / 교회음악 감상(1)
제5주	합창의 실제와 악보의 구조 / 대위법적 악곡의 이해 / 교회음악 감상(2)
제6주	합창의 실제와 반주와의 대화 / 교회음악 감상(3)
제7주	총정리, 각 찬양대 소개

# 이종윤 목사 저서

## 세계 복음화를 위해 각국어로 번역되고 있어

일본과 몽골, 프랑스 3개국에서 이종윤 목사의 저서를 번역하고 있어 주옥같은 저서들이 세계 복음화를 위한 훌륭한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다.

일본에서는 '예수의 비유'를 일본어 번역판으로 출판하기로 하여 번역을 완료하고 검독 중에 있다.(번역자: 차바히데 타카 선생, 검독자: 이미란 집사)

몽골에서는 '신약개론'과 '제자의 길'을 몽골어로 번역하기 위해 울란바트라 대학에서 번역 작업에 착수하였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지난 5월19일(월)부터 10일간 열렸던 제16차 KIMCHI 신학세미나의 강의 원고 전체를 프랑스어로 번역하여 프랑스 Aix in Provence 개혁신학교 Journal에 게재키로 하였다.

이종윤 목사의 저서가 세계복음화의 길잡이로 쓰임받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더욱 기도하며 풍성한 열매를 소원한다.

# 육군 23사단 진중세례식

## 8월30일(토) 오후 2시 23사단 등대교회에서

군복음화를 통해 민족의 75%를 복음화 하기 위하여 비전 2020운동(본부장 이갑진 장로)을 적극 실천하고 있는 우리교회는 오는 8월30일(토) 오후 2시 육군 23사단 등대교회에서 진중세례식을 갖는다.

연중 계속되는 군 자매부대 세례식을 통하여 국군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이 귀한 자리가 계속 이어져 속히 민족의 75%를 복음화 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당일 오전 8시에 교회에서 출발한다.

# 금주의 성구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고린도전서 9:24-25)

Do you not know that in a race all the runners run, but only one gets the prize? Run in such a way as to get the prize. Everyone who competes in the games goes into strict training. They do it to get a crown that will not last; but we do it to get a crown that will last forever. (1 Corinthians 9:24-25 [NIV])



편지 왔어요 - 인도 조범연 선교사

#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존경하는 서울교회 이종훈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

지난 8일 동안의 인도에서의 선교사역은 여러 가지 이정표를 세우는 놀라운 축매역할을 하였습니다. 함께 지내시다가 떠나시니 한쪽의 허전함이 있습니다만 다른 쪽으로는 채워집도 있습니다. 이번 선교여행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1. 오직 선교와 사역으로만 집중된 선교여행은 우리를 순수하게 만들어서 사역의 효과를 엄청나게 더해 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 선교단의 구성은 아주 환상적으로 잘 되었습니다. 가장 어려울 수도 있는 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단장 이영기 장로님의 원칙을 강조하는 리더십, 정수길 목사님의 영어설교, 청년들의 아름다운 율동과 활동적인 어린이 사역, 그리고 김영주 집사님의 침술사역 (인도인들 중에는 침술을 처음 보는 사람들이 대다수여서 호기심을 가지기도 했고, 일부는 실로 몸이 좋아졌다고 간증도 하였습니다).

곽숙, 최미아 권사, 김숙자 집사님의 미용봉사로 인도인과 한국인을 겸하여 섬기시는 사역, 이관모 권사님의 찌개와 김치 비빔밥 그리고 이영숙 권사님을 비롯한 김병심 권사, 최금숙, 최경분 집사, 영비 등 여러분들의 독특한 개성에 근거한 사역 보조 활동 등은 한 치의 오차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드리는 사역이었습니다.



2. 아우랑가바드 교구 역사상 최초의 해외 선교단으로서 서울교회의 사역은 각 교회에 최다 인파가 몰려들게 하였고, 주일 예배에 새로운 신자들이 많이 등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 인도 UBS의 실력과 영성을 갖춘 신학생들, 고아원의 넘쳐나는 아이들, 시골지역의 교회와 사람들... 그리고 짓다만 교회, 공터에 천막을 쳐 놓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 등은 인도 선교의 가능성과 더불어 한계를 가진 인도교회의 현실을 보고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4. 서울교회 단기선교팀이 UBS 신학교와 인도교회 그리고 고아원과 복지관에 헌납하여 주신 헌금은 그들이 하고자 하는 사역에

기초자금(seed money)이 되었고, 우리의 희생 어린 사랑의 방문은 우리가 방문한 모든 곳에서 한국과 한국 교회의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5. 서울교회 단기선교단이 뿌네 지역의 선교사님들과 어린이들을 침술봉사와 미용, 어린이 사역 그리고 식사 대접으로 섬겨 주신 것은 뿌네지역에서 처음 있는 일로서 다른 선교사님들에게도 선교지에 협력해야 한다는 도전을 주고 기쁨을 나누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선교단의 눈부신 활동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지만 무엇보다도 고민하시면서 확고한 결단으로 팀을 이끄신 장로님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선교팀원들에 사랑의 박수를 드립니다.

늘 강건하시고 평안하소서.  
조범연 선교사가 드립니다.



빈약한 자 구제 - 2008바자를 준비하며...

## 우리의 헌신으로 채워지는 아가페 타운

### 열린 바자 - 9월4일(목)-5일(금) 이틀간 열려

이강인 집사  
(바자위원회 설외부장)

바자위원회에서는 2008 열린 바자에 새로운 장터로 일부 기증 품목에 한해 경매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경매는 본래 고대 바빌로니아에서 신복감을 돈으로 사면서 그 역사가 시작되었고, 그 후 악덕 노예상인들도 경매를 통해서 노예 매매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근대적인 의미의 경매는 18세기 영국에서 확립되어 매매행위에 건전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매란 말 그대로 매매행위가 가격경쟁에 의해 결정되는 거래방식을 의미하며 가격결정은 생산자가 아닌 수요자의 의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매의 매매행위와 가격결정이 투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일가일품 기증, 일가일품 매입을 이번 바자의 모토로 삼고 있는 바자위원회에서는 성도의 기증품 가운데 경매에 합당한 물품을 추려서 이번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미 소형 가전(가습기, 한경희 스팀 청소기, DVD플레이어, 팩스), 명품 화장품(설화수), 미술품(홍익대 교수 작품) 등이 경매 물품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번 경매는 바자 둘째 날로 계획하고 있으나 성도 여러분의 기증품이 많지하면 양일간 할 예정입니다.

찾아보면 어느 가정이나 경매에 유용한 물품들이 있을 것입니다. 새 것이면 더없이 좋지만 조금 쓰던 것도 상관없습니다. 단 의류나 가방, 구두 등은 잘 손질해서 출품해 주시면 경매품으로 구분하여 사무국이나 교구에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경매품으로 합당한지에 대해 바자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경매출품자는 자신의 물건이 얼마에 팔리는지를 현장에서 알 수 있고, 아울러 이 금액은 작성한 아가페 타운의 건축 헌금에 합산될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 실천의 장인 아가페타운 건립을 위해 우리는 이번 바자를 통해 또 한 번의 헌신을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아가페 타운 건립의 원년이 우리의 헌신으로 채워진다면 이 또한 주님이 기뻐하실 일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수련회를 다녀와서

# 소제물 되어야...

## 이인선 장로(3교구)

지난 8월 15일, 아가페타운에서 '섬기는 지도자'란 주제로 진행된 장로가족수련회는 이종윤 위임 목사님의 개회예배 특강을 통하여 크리스천 지도자는 하나님의 주 되심과 그의 절대 주권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에 최우선해야 한다는 요지로 지도자론을 강조하시고, 이어 계속된 김은수 목사님의 "참된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한 특강으로 서울교회는 학문적 수월성과 영적성숙성 위에 김치신학세미나, 목회자신학세미나 같은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섬기면서 향도해 나가는 교회의 상으로 부상되고 있음을 신학적 관점에서 증거해 주셨다.

점심식사 후 계속된 영등포교회 원로목사이신 방지일 목사님의 "소제물 되어야"란 제목의 특강을 통



하여 나 개인으로는 완전히 빵아진 고운가루가 되어 "나"는 없어지고 고운가루는 기름(성령)으로 반죽되어 타지도 설지도 않고 골고루 적당하게 익혀(말씀) 맛있고 영양이 있는 음식이 태어나(거듭남) 주님께 바쳐지는 소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강사 목사님들의 지칠 줄 모르는 열정적인 말씀을 통하여 부족했던 자신을 되돌아보고 섬기는 자로서의 자세를 다시 한 번 결단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으며 조용하고 맑은 공기, 우거진 녹음에 폭 빠져 폭염과 삶의 현장에서 지친 몸이 새로워지는 하루가 된 것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습 4:6)

# '녹슨 세 개의 못'

## 황성일 (청년 1부)

매년 반복되는 행사지만 수련회는 언제나 제 마음을 가슴 벅차게 합니다. 저는 이번에도 내 영혼의 깊은 곳을 만져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대해서 그동안 별 생각을 하지 않았던 나는 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느꼈으며, 또한 감사의 편지를 쓸 때는 감사한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내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녹슨 세 개의 못'이라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2000년 전의 일이지만, 십자가에 못 박은 자는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내 마음을 건드렸고,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 날, 우리는 먼저 2시간 동안 요나서를 묵상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것처럼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불순종했던 모습들이 영상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순종한 요나를 다시 사용하셨고 불평하는 요나를 자비롭게 다독거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감동이 내 안에 밀려왔습니다.

'아버지'라는 프로그램에서 우리들의 아버지께 대한 생각들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께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은 늘 내 영혼의 깊은 곳을 만져주고 계심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아버지 하나님과 가슴 벅찬 포옹을 하는듯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 특별찬양

오늘 저녁 찬양예배 특별순서는 고음 목관악기 Flute 과 저음의 Bassoon 이중주로 드러진다. 두 악기의 조화는 아름다움과 사색적 음색을 즐길 수 있는 가운데 종교적 깊이를 더 할 것이다. Flute의 조윤영 선생과 Bassoon의 조병성 선생은 부부로, 두 분 모두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하고, 독일 Dortmund 국립음대에 같이 유학하였다. 조병성 선생은 서울 시립교향악단에, 부인 조윤영 선생은 전주 시립교향악단의 수석 주자로 활약하였으며, 현재 한국예술 종합학교에 함께 출강하고 있다. 피아노 반주에는 우리교회 김복희 집사가 수고하며, '오 놀라운 구세주' 외에 2곡으로 찬양 드린다.

## 2008 성경암송대회

금년 성경암송대회는 예선을 10월 19일(주)에 본선을 10월 24일(금)에 갖는다. **암송범위는 베드로전서 1-5장 전장이다.**

### 동정

- 이종윤 목사는 8월26일(화)부터 이번 학기동안 매주 화요일 오후 장신대 출강을 한다.
- 특려: (12교구)이근대 집사(이찬호 집사 차임) 소은희 성도 가정
- 발령: 김평희 집사(13교구) KOTRA 독일 함부르크 무역관장 (8/21)
- 전화번호변경: 박광일 전도사 010-8559-0087  
지혜영 전도사 010-4523-9784  
성준경 장로 010-9500-4889
- 주간식당봉사: 제1스데반회(8.24) 제2스데반회(8.31)
- 금주의 식사: 이미리·미영·미경 집사의 가정 (부친 이종윤 목사님 생신 감사하며)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8시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이웃사랑·아가페타운 건립을 위한 열린바자가 은혜롭게
2. 서울성경대학·주부대학·경로대학 등 각종 열린프로그램들 열매가 풍성하도록
3. 34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다락방 모임 개강에 성령의 인도하심 있기를
4. 북경 올림픽 통해 국민사기, 세계평화가 진작되도록

